

## ① 셀터 시네마: 돌봄: 일상의 생태를 다룬 세 편의 영화

10월 12일, 19일, 26일, 11월 2일, 9일,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셀터 랩실(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셀터 시네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버스터형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와 조금 다른 일상과 생태를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한다. 외딴 섬에서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학자, 자국을 여행하며 비극적인 역사와 가족의 이야기를 교차한 영화감독, 야생 꿀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럽의 마지막 여성 야생 양봉가가 새로운 이웃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허니랜드(Honeyland)**, 감독 루보미르 스테파노브, 타마라 코데브스카(Tamara Kotevska & Ljubomir Stefanov)  
러닝타임 85분, 국가 마케도니아, 2019년

〈허니랜드〉는 유럽의 마지막 여성 야생 양봉가 하티제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하티제는 고향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벌을 기르고 꿀을 채취하면서 자연과의 균형을 중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고립된 산악 지역에 유목민 가족이 유입되면서 하티제가 지켜온 규칙에 균열이 생기고, 대량의 꿀을 채취하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 하티제는 벌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영화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의 섬세함을 포착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전통적 삶의 방식을 엿보며 한 명의 여성이 가진 뛰어난 회복력을 주목한다

**뉴클리어 패밀리(Nuclear Family)** 감독 에린 윌커슨, 트래비스 윌커슨(Travis Wilkerson & Erin Wilkerson)  
러닝타임 96분, 국가 미국, 싱가포르, 2021년

〈뉴클리어 패밀리〉은 감독과 그의 가족들이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핵 산업의 유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과거 미국이 주도한 핵 실험과 원자력 산업이 지역 공동체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핵의 위협을 조명한다. 감독은 여행길에 마주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통해 핵무기의 실험과 폐기가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드러낸다. 여행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와 핵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이 교차하며, 핵무기와 핵 산업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고독의 지리학(Geographies of solitude)**, 감독 재클린 밀스(Jacquelyn Mills) / 러닝타임 103분, 국가 캐나다, 2022년

〈고독의 지리학〉은 캐나다 동부의 외딴섬 사블 아일랜드(Sable Island)에서 40여 년간 홀로 살아온 환경운동가이자 자연주의 예술가인 조이 루커스(Zoe Lucas)의 삶과 그가 연구한 자연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사블 아일랜드는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지만, 조이는 이곳의 독특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섬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한다. 영화는 조이가 섬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따라가며, 그가 그곳의 동식물과 기후, 그리고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 ② 셀터 세미나 (로컬 세미나: 셀터로 가는 길)

국민대학교 ADM랩(Area Design Management Lab)

11월 2일 토요일

셀터 랩실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축제에 참여한 예술가, 기획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역사회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국민대학교 ADM랩(Area Design Management Lab, 지역 디자인 경영)이 참여한다. ADM랩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역적 문제와 도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이들은 디자인-경영-컨텐츠-건축(도시계획, 재생)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특히 로컬필드트립을 통해 경험디자인적 관점에서 현장의 문화와 경제현황, 네트워크를 탐구한다.

### ㉓ 션터 렉처: 지역과 예술

예술이 지역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중심으로 열리는 강연 시리즈 이다. 다양한 예술적 실천과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영향을 일으킨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 예술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바틱 스토리

토탈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션터 랩실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 정원과 예술

2013 순천만 국가정원 예술총감독 정정수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션터 랩실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 ㉔ 션터 토크

“모두의 션터”를 만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축제의 기획자와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와 관객들이 모여 생태와 예술, 지역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역 예술 플랫폼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션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챗터 1: 션터 구축하기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김민선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 션터 랩실 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 챗터 2: 션터의 구성원들

참여 작가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 / 션터 랩실 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 챗터 3: 션터 확장하기

문화공간;모음 대표 박순영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 / 션터 랩실 B (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 ㉕ 션터 푸드 랩

#### 세 마리 개구리 식당

11월 22일 (추후 공지)  
션터 랩실 A (아그네스 본관 1층)  
예술과 요리를 중심으로 예술가, 기획자, 관객들이 모여 새로운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화가, 음악가, 물리학자, 해부학자 등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때 ‘요리사’이기도 했다. 그는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산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아르노 강변에서 “세 마리 개구리 식당”을 운영했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감각이 요리에도 적용됐고 그는 ‘먹을 수 있는 끈(스파고 만지 아 빌레라)’과 (오늘날 스파게티), 이 끈을 먹기 위해 삼지 포크를 개발하기도 했다. 토탈미술관은 2018년부터 이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가와 셰프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고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감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문을 닫았던 <세 마리 개구리 식당>이 모두의 션터에서 다시 문을 연다.

### ㉖ 션터 북클럽: 『찬란한 멸종』 함께 읽기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11시  
션터 랩실 C(아그네스 파크 본관 3층)  
<모두의 션터>가 펼쳐진 아그네스 파크 이곳 저곳에서 각자 편한 자리를 찾아 독서를 한 후 한데 모여 인상 깊었던 글귀나 생태에 대한 소회를 부담없이 나누는 북클럽이다. 함께 읽을 도서는 이정모 저자의 『찬란한 멸종』이며, 인류가 멸망한 2150년 인공지능이 화자로 등장하여 멸종에 대한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인류가 침묵하면서 비로소 범고래, 산호, 삼엽충 등 지구 생명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 그동안 인간이 바라보던 모든 관점을 뒤집는다.

### ㉗ 션터 워크숍

션터 워크숍은 축제의 주제인 ‘생태-예술-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거제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도슨트 교육을 통해 현대 예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자연미술 워크숍에서는 아그네스 파크에서 채집한 재료를 활용해 축제의 참여 작가와 창의적 작업을 함께 한다. 이 워크숍은 예술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한다.

#### 션터의 도슨트

진행자: 정지윤  
참여자: 만 15세 이상 거제시 청소년  
일정: 11월 3일 오전 11시  
장소: 션터 랩실 A(아그네스 파크 본관 1층)

#### shelter.home.nest

진행자: 김시하  
참여자: 거제시 주민  
일정: 10월27일 (일) 오후 2시  
장소: 션터 랩실 A(아그네스 본관 1층)

### ㉘ 션터 하모니

####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11월 16일 오후 5시  
아그네스 파크 공연장  
창단 20주년을 맞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깊은 감동을 전해왔다. 합창단은 지구를 향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바다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곡을 발표해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지속 가능한 션터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희망하며 노래한다.